

◇...북쪽대표단 일행은 이날 오전 11시52분 판문점 남쪽지역 자유의 집에 도착해 전송나온 남쪽대표들과 작별인사를 나눈 뒤 7분 만에 북으로 돌아갔다.

그랜저 승용차로 남쪽 이효재 대표와 함께 도착한 려연구 북쪽대표는 이 대표에게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인사를 했다.

이에 이 대표는 "또 만남시다"라고 대답했고, 려 대표는 "그럼요. 자주 보면 뭔가 이뤄지겠지요"라며 서운한 표정을 지었다.

정명순씨 등 북쪽여성대표들도 남쪽여성대표들과 일일이 껴안으며 "사랑합니다. 평양에서 만남시다"라고 작별인사를 했다.

◇...려 대표는 북쪽으로 가면서 일정을 줄이고 일찍 돌아가는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소 통명스런 말투로 "많이 참았다. 동창들도 못만나게 하고 가는 곳마다 다 막았다. 우리는 싸움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통일을 하러 왔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려 대표는 이화여대 동창인 남쪽 대표 이효재·윤정옥씨와 헤어지는 것이 아쉬운 듯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다시 되돌아와 이들을 껴안아 이별의 아쉬움을 나타냈다.

윤 대표가 려 대표를 껴안으

며 "미워 죽겠다"고 하자 려 대표는 "미지. 미우면 꼬집으라우"라고 웃으며 응답했다.

◇...려 대표 등 북쪽대표단이 군사분계선을 넘자 최봉춘 고위급회담 북쪽 책임연락관이 려 대표를 포옹하며 "수고 많았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개성시당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꽃다발을 선물했다.

이어 북쪽대표들은 한줄로 남쪽으로 돌아서서 잠시 꽃다발을 흔들며 남쪽 사진기자들에게 자

◇...29일 새벽까지 계속된, 북쪽의 조기귀환 의사를 번복시키려는 노력이 실패하자 남쪽대표단은 오전 7시20분 한숨도 자지 못한 침통한 얼굴로 기자회견장에 나타났다. 대표단은 "북쪽의

내를 숙연하게 했다.

◇...정명순 북쪽 대변인은 29일 오전 출발성명발표 뒤 가진 기자회견중 "조기귀환이 앞으로 남북여성교류 활성화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남쪽 통일

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슴이 아프다. 일찍 철수하는 것은 북남녀성들의 의사는 아니다. 우리 여성들의 노력으로 이런 자리가 마련된 만큼 대화를 계속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만 답했다.

◇...29일 오전 북쪽대표단이 4일간 묵었던 라마다올림피아호텔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던 집행위쪽 사람들은 한결같이 "착잡하다" "뭐라고 할 말이 없다"며 침울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46년 동안 생긴 골인데 그리 쉽게 없어지겠느냐"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을 확인한 만큼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면 될 것"이라고 애써 자위하기도 했다. <특별취재반>

철야협의를 끝내 무산 '침통'

북 대변인 출발성명 발표하며 울먹여 려대표 "가는곳마다 막아" 불만 토로

새를 취한 뒤 북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28일 밤 12시부터 29일 새벽 3시30분까지 계속된 남북한 대표단의 협의과정은 간간이 울먹임이 새나오는 등 비통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이번 남북여성의 만남을 '통일 임진'이라 표현했던 남쪽대표들은 북쪽대표들의 조기귀환 의사로 인한 진통이 '심한 입덧' 정도로 그쳤으면 좋겠다고 바랐으나 '유산'되고 말았다.

조기귀환결정 이유를 이해한다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조기귀환결정이 주최쪽과 한마디 협의 없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선 못내 아쉬운 감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눈치였다.

◇...29일 오전 9시20분부터 10여분간 출발성명을 발표하던 북한대표단 정명순 대변인은 "평양에 돌아가 북반부 형제들에게 서울 시민들과 남녘인사들의 따뜻한 인사를 전하겠다"는 마지막 구절에서 한동안 울먹여 장